



한국은 게임열풍, 북한의 게임문화는 어디까지 왔을까?

당신의 시대, 이제는 통일이다!



이슈 in 통일
최근 한 달간 언론사들의 통일 관련 주요 소식 및 이슈 모음



누아씨 (NUAC) 가 간다
2017 국민총장 수여식



당신이 통일주인공
11년차 사회복지사 전주영 씨



통일돋보기
북한 전력난 '재생에너지'로 극복?



통일 웹툰
독도-신미도 국제대장정 떠난 통일중학교



남한산성에 다시 봄이 오면
경기도 광주시



북한 별미
북에서 즐겨먹는 궁중 보양식 초교탕



[이벤트①] 2018년 새해 '평화통일 덕담' 이벤트



민주평통365일 NUAC News



웹 설치하기



지난호 보기



웹진 다운로드



구독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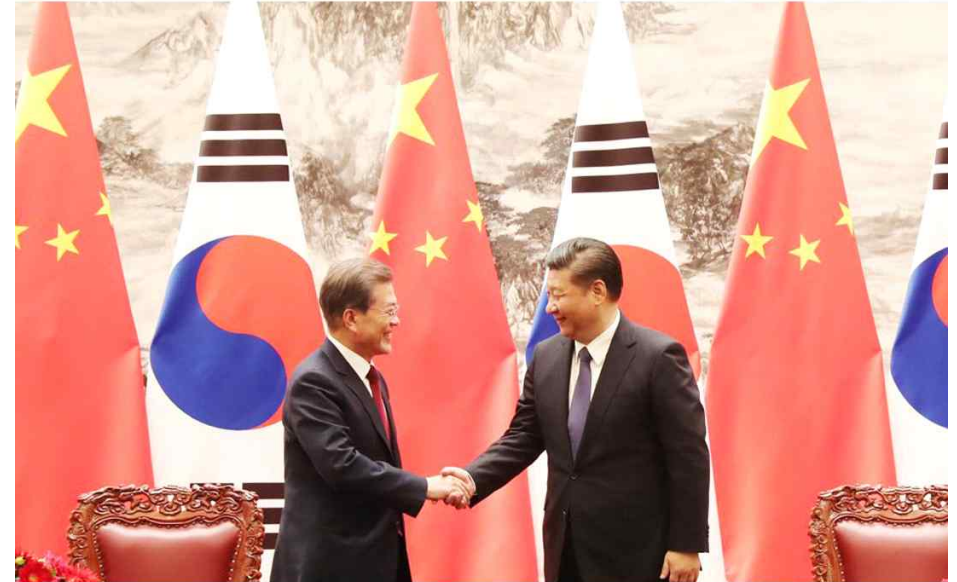
구독 해지



웹진개선의견

무술년에 그리는 한반도 평화

박인휘 (이화여대 스크랜튼대 국제학부 교수)



▲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 서정에서 MOU 서명식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정무년의 한반도에는 전례가 없었던 심각한 안보위기가 있었고, 무술년 새해를 맞이한 지금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정은 아직 갈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작년 말 가까스로 한중관계가 복원되었고, 다소 높은 감이 있지만 한-미-중 관계의 정상적인 세팅을 위한 외교력이 서서히 동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작년 말 평양에서 개최된 군수공업대회에서 김정일은 핵무력 완성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기까지 이르렀고, 이제 더 이상 재발 지체가 없을 만큼 대북정책의 움직임은 서서히 고갈되는 듯한 모양새다.

지난 6년 동안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의 북한과 다른 길을 선택했다. 핵개발과 핵포기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던 김정일과는 달리 김정은의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한 마디로 북한식 '속도전'으로 몰두했다. 북한은 왜 그랬을까? 특히 2016년 이후 숨 가쁘게 수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했음은 물론 미국 본토에 다다를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과 관련해서는 무모함이 엿보일 정도였다. 북한은 무슨 계산을 한 것일까? 모든 종류의 분석을 포괄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두 개의 설명이 자리 잡고 있다.



▲ 북한 제8차 군수공업대회 참가자 맹세문 채택 모임 현장

첫째는 미중 경쟁이 가속화되는 외교안보환경을 북한의 영구적인 생존의 적기(適期)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미중간 국력의 격차가 확연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동아시아 차원에서는 미중 양강(兩強)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는 양상이다. 북핵 문제가 워낙 위중하여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한 목소리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지만, 미중경쟁구도는 기본적으로 북한에게 기회의 창을 제공할 것으로 믿고 있는 것이다.

둘째, '핵-경제 병진'에는 본질적으로 두 개의 공존할 수 없는 목표가 함께 제시되어 있다. 핵무기 이슈가 쟁점으로 남아 있는 한 경제건설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북한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리스크가 크지만 미국을 상대로 핵문제를 빨리 담판 짓고 넘어가야만 경제로의 목표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북한은 꿰뚫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굳이 또 하나의 설명을 덧붙이자면 '트럼프 효과'를 들 수 있는데, 생존을 건 막대한 모험을 하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그 어느 미국 정부보다도 낫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북한 사회를 향한 관여정책이 무엇인지
그야말로 오천만의 지혜를 모을 때다*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스스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대북 제재는 북한에게 고통을 주기는 하겠지만 '핵 포기'의 결단까지는 이끌어 내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핵을 무용지물로 만들어야 한다. 북한 핵을 몇 가지 핵심 수단으로 공공 돌려써서 핵이 가지고 있는 공포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자는 의미이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이징 인민대회당 국빈만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핵심 수단의 첫째는 외교다. 한·미·중의 '비핵연대'만 확실하게 구축하고 있어도 북한은 핵을 가지고 선불리 어떻게 하지 못 할 것이다.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의 조화로운 동시 추진을 위한 여건이 어렵사리 마련되었으니 한·미·중이 자주 만나고 긴밀하게 대북 정책을 조율해 나가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평화체제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북한이 비핵화 대화 혹은 거기에 준하는 수준의 대화에 나오도록 끊임없이 설득하고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면 된다.



*필요하다면 우리끼리 협약도 맺고, 그간 북한 문제에서 존재감이 없었던
국회의 역할도 강화해 우리 스스로 더 단단해 져야 한다*

북한 핵을 무용지물로 만든다는 두 번째 수단은 전략적 대북관여정책이다. 의도는 좋지만, 단순 가공업 중심의 개성공단도, 제한된 공간에서 특정 사람들과의 접촉만이 허용되었던 금강산사업도,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를 교훈 삼아 북한 사회의 신경세포를 건드릴 수 있는 관여정책이 무엇인지 그야말로 오천만의 지혜를 모을 때이다.

포획의 세 번째 수단은 우리 스스로의 대내적 준비이다. 필요하다면 우리끼리 협약도 맺고, 그간 북한 문제에서 존재감이 없었던 국회의 역할도 강화해서, 우리 스스로 더 단단해 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 하나를 덧붙이자면, 재래식 무기를 중심으로 우리 군의 대북 억지수단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야 한다. 요란하게 떠들 것 없이, 차분하게 정찰감시 역량도 높이고 첨단무기도 구입해서, 대북한 억지수단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정부의 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1994년 제네바합의 이후 정확히 23년 동안 모든 대북정책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낸다는 차원에서 보자면 실패했다. 돌이켜 보면 이렇게 했었다면 하는 후회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제 더는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무술년의 아침에 그려보는 평화는 한반도 운명이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손에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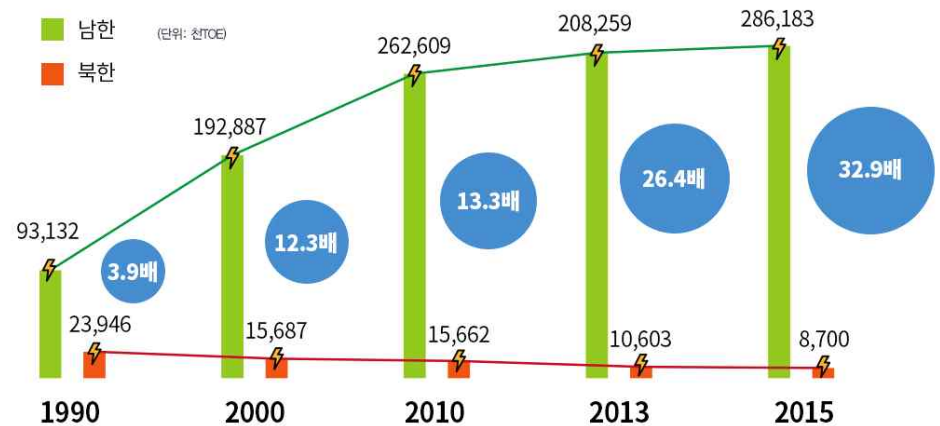
북한은 중화학공업이 발달해 에너지 소비량이 많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찾아온 경제 위기로 1988년 279억kWh였던 발전량이 1998년 170억kWh으로 줄었다고 하는데요. 에너지 공급량도 점점 줄어 2010년에는 1,510만TOE, 2015년에는 그 절반 수준인 870만TOE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은 '재생에너지(재생에너지의 북한말)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남북의 재생에너지 개발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전력난 '재생에너지'로 극복?



총 에너지 생산량

남한 2천800만여TOE으로 북한의 33배
북한 1990년부터 감소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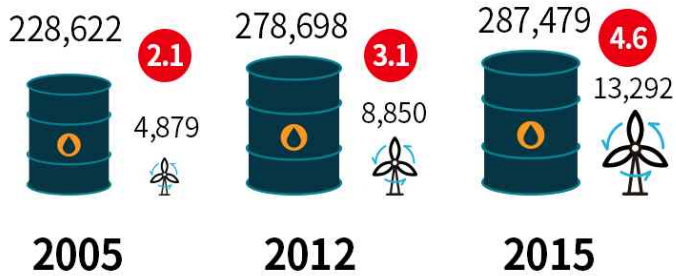


재생에너지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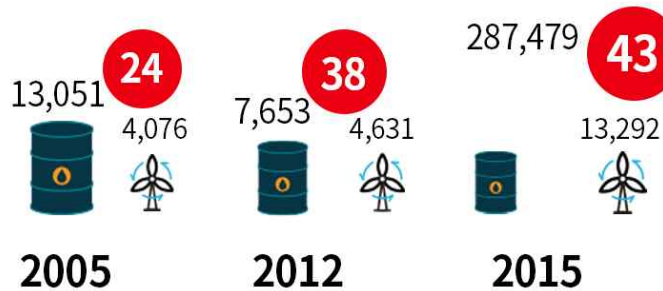
전체에너지 중 재생 에너지 비율 남한은 4.6%
북한은 43.2%로 북한이 높으나
생산량은 남한이 북한의 3.5배 많아



1차 에너지 재생 에너지 (단위: 천TOE, %)



1차 에너지 재생 에너지 (단위: 천TO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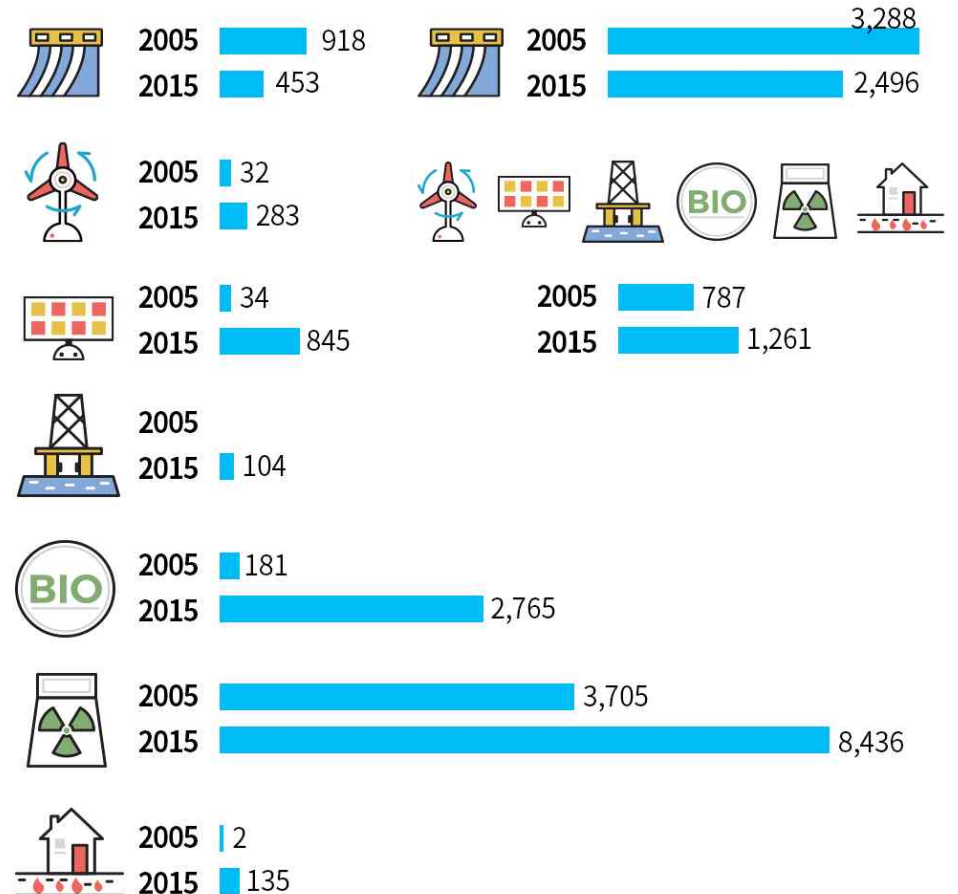


주요 재생에너지

남한은 폐기물 · 바이오가 63%, 태양광이 6.39%
북한은 수력이 28.7%, 기타 14.5% 차지



수력 풍력 태양력 해양 바이오 폐기물 지열 (단위: 천TOE)





재생에너지 개발 현황

남한은 2035년까지 전력의 13.4%를 재생에너지로
북한은 2044년까지 전력의 15%를 풍력에너지로 충당할 계획



| 구분 | 남한 | 북한 |
|-----------|---|--|
| 계획 | 2035년까지 1차 에너지 11% 전력 생산량 중 13.4%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 ‘자력갱생’, ‘전력 생산의 정상화’ ‘소비 관리’라는 에너지 정책에 따라 2044년까지 전력의 15%를 풍력으로 충당 |
| 풍력 | 남한은 단조업체가 풍력발전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발전보다는 부품 생산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편. 그러나 산업화 역량이 부족해 OECD 국가의 평균 수준(28개 국가 중 16위)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 북한의 풍력발전 잠재량은 400kW (풍력밀도 300W/m ² 이상), 남한의 1.7배에 달한다. 이에 2044년까지 전력수요의 15%를 풍력에서 끌어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
| 태양광 태양열 | 남한의 태양광 산업은 재생에너지 개발 분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OECD 국가 중 4위를 차지하며, 태양광 제조분야 중사기업은 127개다. 2015년 기준 태양광 사업 매출액은 7조5천억 원, 수출액은 3조3천억 원이다. | 북한은 2011년 평양만경대 지구에 ‘태양열설비센터’ 건설해 태양열 온실로 비닐하우스 및 결핵요양소 등을 운영해 주민들의 식생활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나선 경제특구 및 서부지역에는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보통강정보기술교류사에서는 매월 150개의 태양광 패널을 판매한다. 2016년에는 광명LED태양전지공장 조업을 시작해 LED제품 생산에 주력 중이다. |
| 폐기물 바이오매스 | 국내 재생에너지는 폐기물 소각이 63.5%, 태양광이 6.39%, 풍력이 2.13%를 차지한다. 하지만 OECD·IEA에서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11개 폐기물 에너지를 제외하고 있어 전체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게 집계되고 있다. | 북한은 나무, 숯, 인분, 가축물 분뇨 등을 이용해 액체 상태의 에탄올, 메탄올, 메탄가스 등 다양한 바이오매스를 생산(2008년 기준 4만6,6631TJ)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확산흡수식 냉동기를 개발해 메탄가스를 활용 중이다. |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 방안

남한은 재생에너지 개발 기술과 부품 생산력이 뛰어나고
북한은 지형 발달로 풍력 및 지열 자원이 풍부
따라서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천연 자원을 교류 협력하면
1차 에너지의 절반가량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다



※ 참고자료

<북한 재생에너지 현황과 시사점> 방현지 · 이석기 저, 산업연구원
“北, 전기 사용하지 않는 확산흡수식 냉동기 개발” 노컷뉴스, 2016년 4월 10일자

이슈 in 통일

'이슈in통일'은 최근 한 달간 주요 언론사들의 통일 관련 소식 중 이슈화되었던 기사들을 모아 정리명한 코너입니다.



“北 리명수 총참모장, 귀순사건 열흘 후 JSA 극비 시찰”

북한군 리명수 총참모장이 북한 병사의 귀순사건 열흘 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북측 초소 등을 극비리에 시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 더보기

한국경제

北, 액체연료 미사일엔 ‘화성’ 표기 교체는 ‘북극성’, 위성 ‘은하·광명성’

미국은 지난달 29일 북한이 시험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화성-15형’에 ‘KN-22’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였다.

+ 더보기



北 “핵 빼고 무엇이든 대화” 美 “핵 안 없애면 전쟁 불사”

최근 북한이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대화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미국은 ‘핵 포기 없이는 대화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보였다.

+ 더보기



유엔 사무차장, 고려항공편 방북... 리용호 등 만나 북핵 논의 주목(종합)

지난 5일 제프리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이 북한 방문길에 올랐다. 펠트먼은 북한의 화성-15형 발사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더보기



NBC “미국, 北 미사일 녹일 마이크로파 무기 논의”

미국이 미사일의 전자부품을 녹이는 방식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저지할 수 있는 마이크로파 무기 개발을 논의하고 있다고 미 NBC방송이 보도했다.

+ 더보기



“북핵 해결에 지구촌 전체가 나섰다”

북한의 화성-15의 발사를 계기로 북미에선 캐나다, 유럽에선 독일이 북핵 위기 해결에 능동적인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 더보기



국방예산, 정부안보다 증액 7년 만에 처음

내년 국방 예산이 43조1581억 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보다 7% 증가한 것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인한 안보 위기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더보기



러 외무 “北, 美와 안전보장 대화 희망... 러시아도 지원 용의” (종합)

북한은 자국 체제 안전보장에 관한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원하며 러시아는 협상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 더보기



방북 펠트먼, 리용호 면담... 헤일리 “美 선수단 평창 참가 미정” (종합)

고도통신은 리 외무상이 “평양 방문을 열렬히 환영한다”며 펠트먼 사무차장을 환대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 더보기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 단체 대표들 “北美 핵위협 고조 멈춰라”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 단체로 선정된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 대표들이 북한과 미국 정부를 향해 서로 핵 위협을 지속하며 긴장을 풀어달라지 말라고 촉구했다.

+ 더보기



2018년 북한달력서 김정은 호칭 격상 ‘최고령도자’ 추가

북한 당국이 최근 발간한 2018년도 달력을 통해 김정은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호칭을 격상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 더보기



한중정상, 한반도 4대원칙 합의 전쟁불가·비핵화·평화적해결(종합)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4대 원칙에 합의했다.

+ 더보기

한겨레

hani.co.kr

[사설] 틸러슨 국무 '조건없는 대화'
북한도 적극 호응하길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각)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첫 만남을 하겠다"고 말했다.

+ 더보기

한국경제

청와대,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문제 "IOC와 긴밀히 협의중"

청와대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북한의 참가 문제와 관련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더보기



“
남북 배우들이 만든 작은 통일

<풍계리 진달래> 새조위 통일연극단



지난해 10월
대학로를 뜨겁게 달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새조위 통일연극단*
'풍계리 진달래' 팀입니다.

*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



'풍계리 진달래'는 북한에 사는 한 부부가
핵실험 영향으로 병에 걸린
아들을 살리기 위해
탈북 이후 겪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새조위는 통일NGO로 1988년 설립되어
탈북민의 의료 지원과 정착 지원을 비롯,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통일을 이야기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작품에는 실제 탈북민 배우 3명과
남한 배우 5명, 단장과 연출자가 참여해
2017년 10월 20일부터 3일간
총 '4회 공연'을 선보였는데요.

김영수 단장, 이지환 연출, 신미녀 대표
배우 김봄희, 오진하, 강화옥, 지미애, 이규석, 심승환, 서다혜



여러 활동 중
통일연극은
2014년 '떠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떠난
탈북민의 이야기를 통일을 이룬 독일 배우들과
무언극으로 펼친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남북 사회 통합을 위한 통일연극
자강도의 추억



이후 탈북민들의 실제 삶을 그린
 '자강도의 추억(2016)'은 공사에서 일하는 탈북민,
 가사도우미 탈북민, 탈북 여고생 등이 한국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옴니버스 식**으로 표현해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좋은 작품인데, 공연 횟수가 너무 짧아요”
 “지방에서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작품성에 비해 공연장이 너무 협소해요”

때문에 많은 관객들이 ‘아쉽다’고 하지만
 단원들 대부분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서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남북 배우들이 화합해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정식 입장료를 받은 것은
 ‘새조위 통일연극단’이 최초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공연이
 4회 만에 끝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새조위 통일연극단의 새해 목표는
첫째, 전국 순회공연,
둘째, 세계에 통일연극 알리기라고 하는데요.
 그간 무대에 올린 작품들이 남한 관객에게는
탈북민을 이해하는 마음을
탈북민에게는 위로와 힘을 준 까닭입니다.



“ **관객층이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대학생들도 많이 오고 이번엔 외국인 유학생부터
 실향민 어르신들까지 오셨더라고요.
남북이 화합한 힘이 이런 게 아닐까 해요.
 저희는 작은 무대에서 통일을 이야기했지만
 관객들은 가슴으로 느끼니까요. ”



통일은 화합이다.
 우리는 떨어져 지낸 세월이 많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부터 융화되어야 한다.
통일은 공감이다.
 서로에 대한 앎을 통해 심리적인
 거리를 좁히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은 하나다.
 걱정하며 시작했지만 결국 하나가 된
 새조위 통일연극단처럼,
통일은 '통이(通異)'다.
 서로 다른 남북이 만들어내는 한민족 캐미니까.
 통일은 아버지 고향 가는 길,
 그리고 원점으로 되돌아가
 다시 전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힘이다.
 - 새조위 통일연극단 일동 -

한국은 게임열풍, 북한의 게임문화는 어디까지 왔을까?

강미진 (테일리NK 기자)



▲ 김정은 위원장이 능라인민유원지 유희장에 있는 전자 오락관을 돌고 있다

“예, 여기 와보니까 사람들 전부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래 나도 방금 그 생각을 했어, 정말 게임에 몰두하는 모습이 북한에 비하면 ‘게임 중독’이라고 말할 정도인 것 같아” 지하철을 타고 가는 말투가 투박한 두 여성의 소곤거리는 소리가 옆에 앉아 있는 나에게까지 들었다. 용기를 내 그들에게 인사를 한 후 북한의 컴퓨터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민족문화 유산인 고전소설이나 역사적으로 전해오는 이야기들을 활용한 북한의 게임 산업을 파헤쳐본다.

역사, 고전소설 소재로 한 북한 게임소프트웨어

최근 북한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들에서는 전자 오락관이 성행하게 되면서 대부분의 청년학생들이 게임과 전자오락에 푹 빠져 있다고 그들은 말했다. 언젠가 북한 내부 주민이 전한 소식에서도 부유층 자녀들 속에서 DVD 및 컴퓨터 내장용 게임이 크게 유행하면서 하루 종일 게임에만 몰두하는 중독 증세까지 보이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말 컴퓨터 보급과 함께 게임소프트웨어가 등장했다. 주로 역사나 고전소설을 소재로 한 게임들이다. 역사를 소재로 한 게임으로는 ‘조선협객전’과 ‘삼국통일:대륙을 꿈꾸며’가 있다. ‘조선협객전’은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왜란이 일어난 원인을 찾아 없애는 MUG(Multi User Graphic)방식의 게임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 정벌을 명분으로 조선을 침범하려고 하자 조선 협객들이 검사, 궁사, 승려, 도사 등과 힘을 키워 싸워나간다는 내용이다.

또 '삼국동일: 대륙을 꿈꾸며'는 배틀 서버를 활용한 인터넷 멀티플레이 게임이다. 삼국시대가 배경인데, 게임 옵션으로 사투리를 지정할 수 있고 처용, 도깨비, 청룡, 주작, 현무 등의 유닛을 설정할 수 있다. 게임을 하는 본인의 취향이나 성격에 맞춰 자신들이 좋아하는 언어를 선택하고 설정된 양을 자유롭게 재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쩌면 북한 게임마니아들이 시간을 쪼개가면서 게임에 빠져들게 되는 것 아닐까 싶다.

고전적인 것을 즐기고 좋아하는 고객들의 심리를 파악, 고전소식을 소재로 한 게임도 내놨다. 바로 '홍길동전'인데, 이 게임은 최초의 IBM PC 소프트웨어 기반의 게임으로 한글 대화가 이뤄졌으며 1998년에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출시됐다. 홍길동과 탐관오리에 의해 부모를 잃고 불랑배가 된 차돌바위가 의형제를 맺고, 금강산 곱단야와 사악한 마법사 골반도사와 대결하는 내용이야. 이 버전에서는 홍길동이 좌우로 움직이고 앉거나 점프하며 칼이나 표창(鏢槍), 장풍 등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북한 스마트폰 151에는 게임 프로그램인 주매놀이, 현대랭크전, 탁구배우기, 조선장기 등 20여 가지의 게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방학 핫 아이템, '오락팔' 연결한 DVD게임

북한의 게임 산업은 최근 스마트 폰의 확산으로 더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 공업도시에 살고 있는 한 주민은 "방학을 며칠 앞두고 일부 학부모들 속에서는 '여름 같으면 강이나 산에 놀러가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겠지만 겨울방학은 집에 있는 날이 많아서 게임과 씨름할 것이 뻐하다'는 걱정 한 가지가 더 늘게 생겼다"며 "이번 겨울방학에도 아이들 방학숙제 해주게 생겼다"고 말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실지 북한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평소에는 한두 시간 게임을 하던 아이들이 방학이 시작되면 게임에 몰두하는 시간이 크게 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두뇌 발달에 좋다는 말만 믿고 게임 충전용 배터리까지 구입해 줬던 일부 부모들은 이제 와서 후회가 막심하다고 말하기도 한다고 한다. 북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게임은 과거 소형 오락기용이 아니라고 한다. 최근 DVD 재생기나 노트북에 게임 프로그램이 담긴 DVD를 넣고 오락팔(조이스틱)을 연결해 즐기는 전투형 게임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전투형 게임은 주로 중국에서 수입되는데 '탱크 전쟁, 로봇 총쏘기, 비행기 쏘기, 말 따라잡기' 등이다.

컴퓨터로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북한 게임마니아들은 어디서 무엇으로 게임을 할까? 한국의 곳곳에는 PC방이 있고 대부분 개인 가정에는 외국영화와 드라마를 볼 수 있는 DVD 재생기가 있기 때문에, 소위 오락팔과 게임 프로그램용 DVD 구입하면 게임을 할 수 있다. 몇 년 전에는 전력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는데 지금은 태양열광관의 덕으로 전기에 대한 걱정은 어느 정도 가시진 셈이어서 게임기 사용하는데 큰 지장은 없다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말이다.

당 간부, 신형 부유층 자제들의 게임중독 현상



▲북한 아리랑 151에 기재되어 있는 여러 스마트폰게임

이렇게 게임기와 충전용 배터리까지 보유한 청소년은 일반 학생들에게 우상이나 다름없다. 주로 당 간부와 신형 부유층 자제들은 노트북을 이용해 게임을 하면서 또래의 부러움을 사지만, DVD 재생기도 없어 게임에 접근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이러한 유행에서 소외되고 있다. 가장 형편이 어려운데도 아이들의 게임 프로그램 구입 성화에 형편이 어려운 가정들도 적잖게 곤란한 입장이라고 한다.

양강도 해산 주민은 "국수를 팔거나 감자떡을 해서 시장에 내다파는 장사꾼들도 자녀들이 따돌림 당할까 전전긍긍하면서 푼돈을 모아 녹화기와 게임이 들어있는 DVD를 구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런 게임 열풍은 아이들의 생활문화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것이 북한 주민들의 말이다.

이와 관련 국경지역 거주 한 주민은 "아이들이 게임을 하느라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때가 많고 어쩌다 제 시간에 먹는다고 해도 녹화기 앞에서 게임을 하면서 먹는 다. 게임에 너무 빠져들어서 숙제도 내팽개친 아이들이 있어 부모가 대신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게임에 빠져들고 있는 모습은 한국의 젊은 층의 모습을 방불케 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북한 전역에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유행되기 시작했고 일부 영화 드라마들에서 게임과 관련한 장면들이 입소문을 타고 주민들 속에 퍼지게 되면서 중국을 통해 게임기가 유행하게 됐다. 이렇듯 북한에서 청소년들의 유행이 한류에 이어 게임까지 우리 청소년들과 매우 흡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류 영화나 드라마 시청은 부모와 자식이 함께하는 취미활동이었지만 게임은 청소년들의 전유물이라 가족 간 단절이나 갈등의 원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최근에는 북한에서도 중국 범죄영화를 모방한 폭력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게임 중독이 북한 청소년의 폭력성을 증가시킬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12년 처음으로 PC게임 '평양레이서'를 자체 제작했다. 이 게임은 북한 전문 여행사인 고려투어와 IT아웃소싱 전문회사 노소텍이 제작한 레이싱 게임이다. 최근에는 핸드폰에 게임이 탑재돼 청소년들이 부모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는 경우도 많다. 북한 스마트폰 아리랑 151에는 '자동차경주, 바둑수풀이, 실매듭풀기, 달 따라잡기, 새맞히기, 조선장기, 어린 원숭이의 모험, 오토바이 경주' 등 다양한 스포츠 게임 프로그램도 내장되어 있다.



▲북한 평양시내의 전자오락 시설. 전자총으로 사격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보인다



(사진자료: 연합뉴스)

“산을 함께 넘는 친구들이 있어 든든합니다” 11년차 사회복지사 전주영 씨

주영 씨는 매일 데이트를 한다. 상대는 그가 일하고 있는 복지재단 '형님'과 '아우들'이다. 아침마다 주영 씨는 그들의 식사와 세면을 도와주고 오후에는 병원, 은행, 동사무소 등을 함께 다닌다. 배우 못지않은 '브로맨스'를 자랑하는 그는 올해 11년차 사회복지사 전주영 탈북민이다.



☀️ 봉사활동이 찾아준 전직 '사회복지사'

주영 씨는 2007년 9월 이곳에 왔다. 집 근처 교회가 탈북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유시민대학'을 운영했는데 그곳에서 참여했던 장애인봉사활동이 지금의 인연을 만들어주었다. 당시 주영 씨는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을 나르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낮에 인터넷을 검색하다 알게 된 단체였다.

자유시민대학에서는 생활에 필요한 실습들을 했다. 하나원에서는 한국 생활에 필요한 이론들을 배웠다면, 이곳에서는 직접 현장에 나가 부딪히는 연습을 했다. 그러다 자유시민대학에서 만난 학장이 한 장애인 복지재단에서 사람을 구한다며 면접을 권유했다.

“자유시민대학에서 1박2일로 봉사를 갔었는데 한 장애인 친구가 발가락에 멘을 끼고 시를 썼어요. 제목이 '나의 팔다리는 장식품인가'였는데 순간 마음이 '깡'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장애인인데도 문단에 등단도 하고 사회복지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나는 팔다리가 얼얼하니까 더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학장님이 복지재단을 소개해주셔서 바로 사회복지 공부를 시작했어요.”



▲교회 봉사활동에서 만난 장애우 친구들



▲장애우의 아침식사를 돕고 있는 전주영 씨

☀️ 누군가의 손을 씻겨주면 제 손도 깨끗해집니다

머칠 뒤 주영 씨는 '합격'을 통보받았다. 우연히 시작한 봉사활동이 그의 천직을 찾아준 셈이다. 이에 주영 씨는 곧바로 서울사이버대학에 입학했고 2년 열공 끝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얻었다. 복에서 다녔던 대학 학력이 인정된 덕분이었다.

졸업 후에는 북한대학원 대학교에서 북한학 석사과정을 마쳤다. 훗날 탈북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사회복지와 연결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전문상담사 3급과 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을 함께 취득했다.

물론 그간의 세월이 마냥 즐겁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그도 '탈북민'이라는 편견과 소외감을 이겨내고자 애쓰고 노력했던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때마다 자신을 '아빠'라 부르는 장애인들을 보면 그간의 괴로운 일들이 싹 잊혀질 만큼 고맙다고 한다.

“처음엔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에 충격을 받았어요. 북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도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마치 제가 누군가의 손을 씻겨주면 제 손도 같이 깨끗해지는 것처럼요.”



▲전주영 씨

☀️ 8년의 기숙사 생활로 마련한 '우리 집'

주영 씨는 이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재능을 발견했다. 바로 절약과 저축이다. 복지사가 되고 받은 첫 월급이 187만 원이었는데, 북한 돈으로 환산해보니 북에서 160만 이상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다.

이에 주영 씨는 돈을 더 절약하겠다는 일념으로 아내와 살던 임대아파트를 정리했다. 매일 장만 자러 가는 집에 월 15~20만 원을 내는 게 아까웠던 이유다. 그래서 주영 씨와 아내는 8년간 기숙사 생활을 하며 관리비, 난방비, 교통비 같은 지출들을 줄여나갔다.

덕분에 주영 씨는 얼마 전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 힘들게 번 돈을 한푼 두푼 모으다 보니 큰 십년 만에 그림 같은 꿈이 생긴 것이다.

“정년퇴직이 멀지 않았는데, 퇴직하고 나면 저희 집에 장애인 홈스테이를 만들어서 두세 분과 함께 살려고 해요. 물론 제약은 있겠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많고 제가 조금만 노력하면 몇 분이라도 도울 수 있으니까요.”

주영 씨는 최근 자유시민대학 후배들에게 멘토가 돼주고 있다. 10년 전 자신에게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안내해준 김영원 목사님과 재단 이사장님, 학장님을처럼 따뜻한 조력자가 돼주고 싶은 까닭이다. 북한에서는 선택의 자유가 없었지만, 한국에서는 '자유'와 그에 따르는 '책임'도 있으니 충분한 고민과 경험이 필요한 이유다. 그래서 그는 “선택을 잘 하려면 욕심을 버리고 배움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주영 씨에게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은 '삶의 버팀목'이다. 자신은 그들의 손발이 돼주지만 그들은 주영 씨에게 일편단심 민들레 같은 친구가 돼주기 때문이다. 주영 씨와 친구들은 매일 서로를 응원하며 크고 작은 산들을 함께 넘고 있다.



▲봉사자들과 함께 짜장면을 만들고 있는 전주영 씨

북에서 즐겨먹는 궁중 보양식, '초교탕'

초교탕은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에 등장한 궁중음식이다. 당시 기록인 '원행을묘정리의궤'를 보면 회갑연이 음력 2월에 열렸는데, 초교탕은 소고기, 닭고기, 도라지를 끓인 육수에 표고버섯, 미나리, 달걀 등을 넣어 추운 계절 몸의 보양을 위해 먹었던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몸이 허할 때 남한에서는 삼계탕을 먹는다면, 북에서는 초교탕을 먹는다. 기관지 건강과 소화를 돕는 뜨끈뜨끈 '초교탕'으로 새해 건강을 챙겨보자.



요리재료

닭고기 100g, 다진 소고기 200g, 도라지 50g,
미나리 50g, 마른 표고버섯 10g, 달걀 2개, 밀가루 150g
양념: 간장 10g, 파 20g, 마늘 5g, 참기름 5g, 후춧가루 0.5g

Step 1



도라지는 소금으로 주물렀다 물에 헹궈 쓴맛을 빼주고, 닭고기는 삶아서 가늘게 찢어 놓는다.

Step 2



다진 소고기에 표고버섯, 도라지, 미나리, 밀가루와 양념재료를 넣어 반죽한다.

Step 3



끓는 물에 반죽을 조금씩 뜬어 넣어 끓인다.

Step 4



고기가 익을 즈음 달걀을 풀어 넣고 달걀이 떠오르면 불을 끈다.

깊고 맑은 국물, 상큼한 미나리

초교탕은 맑고 깊은 맛이 일품이며 입안에서 씹히는 미나리가 상큼함을 더한다. 영양학적으로는 단백질과 도라지가 만나 기력 회복과 소화흡수, 기관지와 폐 건강에 도움을 준다. 단, 초교탕은 미리 끓이면 반죽이 붙어 맛이 없으므로 재료만 마려해두었다가 식사 때 육수를 끓여 바로 만들어 먹는 것이 좋다. 기호에 따라 해삼, 전복, 죽순, 고추 등을 넣어 먹기도 한다.



남한산성에 다시 봄이 오면

성 아래로 강물이 흘러와
성은 세계에 닿아 있었고, 모든 봄은 새로웠다.

김훈 <남한산성> 서문



어쩌면 400여 년 전 전란이 일어났던 그 겨울에도 눈 내린 풍경은 평화로웠을지도 모른다. 순백의 세상, 역사와 자연의 섬리앞에 서니 마음이 겸허해진다. 모든 시간과 공간이 눈 내린 풍경 안에 겹쳐 들어가 어느새 길은 과거 어느 곳을 향한다. 세계를 집어삼키던 청나라의 강성한 힘 앞에 위태롭게 마주 선 조선의 시간. 슬픈 역사가 시작되었던 1월, 남한산성 여전히 아름다운 그 풍경 속으로 들어갔다.



인조는 남한산성 남문으로 들어가 성문을 걸어 잠그다, 남문(지화문)

남한산의 지세는 본디 남한산성이 될 운명을 타고 난 듯하다. 밖은 험준하지만 안으로는 부드러운 천혜의 요새다. 백제를 건국한 온조왕이 터를 정한 자리라고도 하며,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문무왕 대에 지어졌던 주장성의 터가 있던 곳이기도 할 만큼 예로부터 군사적인 요지였다. 인조는 재위한 바로 다음해인 1624년 이곳에 성을 쌓고 행궁을 짓도록 했다고 한다. 총 9km의 성은 차곡차곡 어디나 가지런해 그 자체가 거대한 갑옷과 같다.

축성한 지 12년 후인 1637년, 인조는 비극적인 전란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지은 이 행궁으로 들어온다. 시간이 없었다. 청 태종인 홍타이지가 이끄는 군대가 압록강을 건너 남한한다는 소식이 너무 늦게 전해지는 바람에, 궁궐에 이 소식이 알려졌을 때는 이미 청의 군대가 개성까지 진군한 상황이었다. 처음엔 강화도로 피난하고자 했지만 청의 군대가 진군하는 속도에 쫓겨 인조는 남한산성에 머물러야 했다. 이때 임금이 걸어 들어갔던 문이 바로 남한산성 정문에 해당하는 남문이었다.



▲ 남한산성의 정문에 해당하는 남문(지화문)

남문은 남한산성에 있는 동서남북 4대문 중 가장 크고 웅장한 중심문으로, 정조 3년에 성곽을 보수할 때 지화문(迺和門)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인화가 없다면 누구를 믿고 성을 지킬 것인가?'라는 정조의 생각이 반영되었다고 하는데, 아마 그 뜻은 '평화에 이르는 문'이나 '지극한 화합' '최상의 공존' 정도가 될 것이라. 어둠에서 빛을 꿈꾸고 전란의 자취에서 오히려 평화를 떠올리는 것. 그래서인지 남문과 짝이 될 만한 북문에는 전승문(戰勝門)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진정한 평화와 화합에 이르러 약자도 패자도 없이 모두 승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승리, 태평성대가 되지 않겠는가. 비극적인 역사를 딛고 모두의 평화를 기원하는 이름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 남한산성의 성벽을 따라 걷는 돌레길



▲ 남한산성을 오르는 산길에 눈이 쌓여 있다

남문에 오르니 도심이 한눈에 들어온다. 성문 앞에 350년 된 느티나무나 주변 노송들은 오랜 세월을 지켜보았을 것이다. 조선을 지키던 군사들의 혼백과 기상이 느껴지는 듯하다. 예측할 수 없는 운명 앞에, 임금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을 것이다. 폐 깊숙이 들어마신 호흡 가득 차가운 바람이 날카롭게 들이친다.



▲ 견고하게 쌓아올린 남한산성 성벽



물리설 곳 없는 고립무원 세상의 끝에 서다, 수어장대(서장대)와 행궁

굴주림과 추위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기쁨 희망이 보이다가도 여지없이 무너지는 장면들은 최근 소설 <남한산성>과 동명의 영화에서도 치열하게 재현되고 있다.

"성은 산천이 빚어내는 샘이나 꽃처럼 생겼다. 성은 오목하고 단아했다. 어디선가 향 사르는 냄새가 나는 듯도 했다. 눈 쌓인 행궁 지붕 골기위가 햇빛에 반짝거려, 마치 갓 잡아올린 생선 비늘처럼 보였다.(소설 <남한산성> 229쪽)"



▲ 척화파와 주화파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던 외행전



▲ 인조 임금의 머무르던 왕의 침소, 내행전

소설에 묘사된 풍경은 당시 치열한 전란의 상황을 묘사했다고 보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반짝인다. 이러한 진술은 압도적인 세계의 힘이 파괴하던 민초의 삶이 얼마나 평화로웠던 것인지를 방증한다. 우리가 '우리'의 고유함을 지켜낼 수 없을 만큼 상대는 너무 강한 세력이었다. 하지만 질 줄 알면서 버티고자 한 것이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었을까. 어쩌면 지키고 싶은 것이 너무도 소중한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너무도 간절해서 자신이 부서져도 어리석더라도 마지막까지 놓을 수 없었을까도 모른다. 지금은 너무도 아름다운 겨울의 풍경이다. 이 터에서 처음 나라를 열었던 백제의 시조 온조를 기리는 '송렬전'부터 임금의 침전인 '내행전'과 척화파와 주화파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인 '외행전' 등 행궁의 이곳저곳은 평화롭기 그지없다.

산책로를 따라 청량산 꼭대기의 수어장대까지 걸어 올라간다. 수어장대는 한성을 수비하는 수어청 군사들이 옮겨와 주둔하던 곳이라 하여 '수어장대'라는 이름이 붙었다. 병자호란 당시에는 인조가 직접 군사를 지휘하며 참전했던 곳이기도 하다. 수어장대에서 내려다보면 성 안과 주변의 도시, 멀리 인천 앞바다의 일몰까지 볼 수 있다. 당시 적병이 새카맣게 갈려 있었던 곳에는 지금은 감실 석춘호수가 환히 보인다. 그곳을 지키던 장수의 가슴에는 슬픔과 두려움이 교차했으리라.



▲ 수어청 군사들이 주둔했던 수어장대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그 겨울과 봄, 서문(우익문)과 삼전도비

항복하게 된 이유를 삼남의 자원 실패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로 강화도가 함락되어 두 왕자와 원손이 포로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왕자들과 원손이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이 남한산성까지 전해진 것이 1637년 1월 26일이었고, 인조는 그 다음날인 27일 출성(出城)을 약속하는 서신을 청 태종에게 보낸다. 임금 역시도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고통 받은 한 명의 나약한 사람이었으며,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무력함을 절감했으리라.

서신을 받은 후 1월 28일, 청의 군대는 포격을 중지하고 소수의 목병만을 산성 주변에 간류시킨 다음 주력군들을 외곽으로 철수시켰다. 화의의 방침이 전해진 뒤에도 김상헌, 정운, 윤집, 오달제 등 척화파들은 국왕의 출성을 반대했지만 다시 이를 뒤인 30일 인조는 묘시(오전 5~7시) 무렵 세자 및 대신들과 호위군을 동반하고 서문으로 나갔다. 인조는 곤룡포 대신 청의(靑衣)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서문은 흥예가 낮아 말을 타고 있던 인조는 허리를 숙이고 문을 지나갔고, 서문을 빠져나오면 경사가 심한 길이었으므로 왕은 말에서 내려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인조는 그렇게 걸어서 청 태종의 지휘본부가 있던 삼전도로 향했다.



▲ 인조가 걸어 나간 서문(우익문)

서문의 다른 이름은 '우익문(右翼門)'으로 오른쪽 날개라는 의미이다. 이와 짝이 되는 동문은 '좌익문(左翼門)'이 되는데, 왕이 남쪽을 보고 앉으면 서문은 오른쪽이고 동문은 왼쪽이 되기 때문이라 한다. 좌우의 날개가 균형을 잃고 흔들렸던 어느 날, 인조가 송파나루의 삼전도까지 걸어진 거리는 직선거리로 6.4km 정도로 보통 사람의 걸음 속도를 4~6km/h로 보면 두어 시간 정도 되는 거리다. 날개가 꺾인 채 한참을 걸어진 인조는 청 황제를 향해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삼배구두(三拜九叩頭)의 치욕을 겪는다. 당시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은 볼모로 끌려가 8년을 통한의 세월을 보내는데, 봉림대군이었던 효종이 즉위한 뒤 그때의 비통함을 잊지 않겠다는 뜻으로 지은 '무망루(無忘樓)'라는 현판이 수어정대에 남아 있다.



▲효종이 역사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는 무망루

다시 봄이 되고 송파강의 얼음은 매년 얼었다 녹았을 것이다. 현재 청 군대가 주둔했던 송파나루와 삼전도비 자리는 매립되어 장실 석촌호수 주변의 도심의 풍경만 남아 있다. 이 자리에 서니 이후로도 오랫동안 우리는 세계의 거대한 힘에 휩쓸려 역사적인 절망을 계속 겪어왔음을 생각하게 된다.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역사, 남한산성은 2014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행궁을 비롯한 여러 건축물과 그 속에 담긴 역사적인 내용이 재조명되고 있는 중이다. 우리의 선조가 남겨준 선물과 같은 이 시간과 공간이 부디 기억되어, 후대에도 오래오래 전해지기를 바라본다.



▲장실 석촌호수 주변에 남아 있는 삼전도비

“양국이 통일된 메시지로 안보협력 펼치자” ‘2017 한·미 평화통일포럼’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황인성)와 신미국안보센터(CNAS)가 공동주최한 '2017 한·미 평화통일포럼'이 12월 14일 미국 워싱턴 코트 호텔(Washington Court Hotel)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동북아 안정을 위해 양국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올해는 정관계 인사와 전문위원, 현직동료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1세션은 '한·미 양국의 대북·대외정책과 한반도 평화전략'을 주제로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원, 수미 테리(Sue Mi Terry)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가 패널로 참석해 한국과 미국의 대북·대외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이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양국이 통일된 메시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세션에서는 앤드류 예(Andrew Yeo) 미국 카롤리나대 교수,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안토니 루지에도(Anthony Ruggiero) 미국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 김준형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석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 양국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청년들이 만들어가는 평화·번영의 한반도 ‘2017 평화공감 해외 청년위원 컨퍼런스’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아세안지역회의(부의장 이수진)는 12월 10일부터 2박3일간 싱가포르 M호텔에서 '2017 평화공감 해외 청년위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90여 명의 해외 청년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일차에는 △오리엔테이션 및 분임토의(I) △이수진 아세안부의장 주최 환영만찬, 2일차에는 △개회식 △강연 △분임토의(II) 결과발표 △분임토의(II), 3일차에는 △토크콘서트 △분임토의(II) 결과발표 △총정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황인성 사무처장은 둘째 날 '청년들이 만들어가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제목으로 기조강연을 맡았으며,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문재인정부의 평화통일정책과 통일공공외교의 과제'에 관한 강연을, 박종범 유럽부의장은 기업 경영철학과 비전 등에 대한 특강을 들려주었다. 이에 18기 해외 청년위원들은 분임토의를 통해 프로젝트 및 정책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방안들을 내놓았고, 마지막 날 토크콘서트에서는 참석자 모두가 '내가 생각하는 평화, 내가 꿈꾸는 통일'이라는 주제로 자유로운 대화 시간을 가졌다.

강연회 및 포럼, 좌담회

강연회 및 포럼



▲ 4차 울산평화통일포럼(울산지역회의)



▲ 제5차 충남평화통일포럼(충남지역회의)



▲ 통일강연회(부산 기장군협의회)

울산지역회의(부의장 김덕순)는 12월 11일 '2017년 4차 울산평화통일포럼'을 개최했다. 충남지역회의(부의장 김학민)는 8일 순천대학교에서 '2017년 제5차 충남평화통일포럼'을 열었다. 같은 날 부산 기장군협의회(회장 김세현)는 자문위원과 초청 내빈, 북한이탈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통일강연회'를 진행했다.



▲ 명사초청 통일공감 강연회(경남 밀양시협의회)



▼ 제57차 제주평화통일포럼(제주지역회의)



▼ 제30차 인천평화통일포럼(인천지역회의)

경남 밀양시협의회(회장 박형욱)는 12월 9일 밀양시장과 시민,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명사초청 통일공감 강연회'를 개최했다. 제주지역회의(부의장 김영춘)는 8일 '제57차 제주평화통일포럼'을 진행했다. 인천지역회의(부의장 김용복)는 6일 포럼회원, 역할자, 관계자 등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0차 인천평화통일포럼'을 열었다.



▲ 청소년 통일 강연회(서울 종로구협의회)



▲ 청소년 통일 강연회(전남 장성군협의회)



▼ 평화공감 토크콘서트(서울 구로구협의회)

서울 종로구협의회(회장 최재교, 12월 6일)와 전남 장성군협의회(회장 차창근, 12월 5일)는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2017 청소년 통일 강연회'를 개최했다. 서울 구로구협의회(회장 최철학)는 14일 구청 대강당에서 지역주민, 대행기관장, 자문위원과 함께 '평화공감 토크콘서트'를 실시했다.

좌담회



▲ 오피니언리더 초청 평화공감 좌담회(전남 강진군협의회&서울 종로구협의회)



전남 강진군협의회(회장 이종현, 12월 12일)와 서울 종로구협의회(회장 최재교, 12월 7일)는 한반도 평화정착 여론과 정부의 평화 구상에 대한 공감대 확산하는 '2017 오피니언리더 초청 평화공감 좌담회'를 실시했다. 경기 양평군협의회(회장 전경복)는 12월 5일 '2017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좌담회'를 개최했다.



◀ 평화공감 여성좌담회(서울 영등포구협의회&충북지역회의&경기 과천시협의회)

서울 영등포구협의회(회장 이상조, 12월 6일), 충북지역회의(부의장 박문희, 12월 10일), 경기 과천시협의회(회장 김준현, 12월 8일), 전남 함평군협의회(회장 이근택, 12월 8일)는 여성 자문위원 및 지역 여성리더 등을 초청해 '2017 평화공감 여성좌담회'를 개최했다.



▲ 평화공감 여성좌담회(전남 함평군협의회)

정기회의



▲ 4분기 정기회의(경북 울릉군협의회&서울 성북구협의회&제주 서귀포시협의회&경남 통영시협의회)

경북 울릉군협의회(회장 양병환, 12월 12일), 서울 성북구협의회(회장 이필순, 12월 11일), 제주 서귀포시협의회(회장 송재철, 12월 13일), 경남 통영시협의회(회장 조일형, 12월 8일)는 '2017년 4분기 정기회의' 행사를 개최했다.

▼ 4분기 정기회의(경북 경산시협의회&경기 평택시협의회&충남 서산시협의회)



경북 경산시협의회(회장 김관진, 12월 13일), 경기 평택시협의회(회장 이윤하, 12월 13일), 충남 서산시협의회(회장 유기명, 12월 12일), 전북 정읍시협의회(회장 정태호, 12월 14일)는 '2017년 4분기 정기회의'를 실시했다.



▲ 4분기 정기회의(전북 정읍시협의회)



▲ 4분기 정기회의(전남 광진군협의회&대구 달서구협의회&경남 의령군협의회)



▲ 4분기 정기회의(경기 파주시협의회)

전남 강진군협의회(회장 이종현, 12월 12일), 대구 달서구협의회(회장 안종희, 12월 14일), 경남 의령군협의회(회장 장재관, 12월 11일), 경기 파주시협의회(회장 김양한, 12월 13일)는 '2017년 4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 4분기 정기회의(경기 안산시협의회)

▼ 4분기 정기회의(충남 청양군협의회)

▲ 4분기 정기회의(경기 화성시협의회)

경기 안산시협의회(회장 유선중, 12월 12일), 충남 청양군협의회(회장 이정우, 12월 12일), 경기 화성시협의회(회장 김정식, 12월 13일)는 자문위원 및 주요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4분기 정기회의'를 열었다.



▲ 4분기 정기회의(전북 부안군협의회&경북 고령군협의회&강원 화천군협의회&부산 기장군협의회)

전북 부안군협의회(회장 임기태, 12월 13일), 경북 고령군협의회(회장 정석원, 12월 11일), 강원 화천군협의회(회장 강동화, 12월 4일), 부산 기장군협의회(회장 김세현, 12월 8일)는 '2017년 4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 4분기 정기회의(경북 봉화군협의회)

▲ 4분기 정기회의(대구 남구협의회)

경북 봉화군협의회(회장 박도우, 12월 6일), 인천 남동구협의회(회장 정찬주, 12월 8일), 대구 남구협의회(회장 구용호, 12월 4일), 제주 제주시협의회(회장 성일승)는 '2017년 4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 4분기 정기회의(제주 제주시협의회)



▲ 4분기 정기회의 및 송년회(전남 목포시협의회&서울 구로구협의회&대전 대덕구협의회)



▲ 4분기 정기회의 및 송년회(인천 남구협의회)

전남 목포시협의회(회장 조옥희, 12월 7일), 서울 구로구협의회(회장 최철학, 12월 6일), 대전 대덕구협의회(회장 김태훈, 12월 8일), 인천 남구협의회(회장 신병희, 12월 7일)는 '2017년 4분기 정기회의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 4분기 정기회의(경기 구리시협의회&서울 마포구협의회)

경기 구리시협의회(회장 임귀수, 12월 6일), 서울 마포구협의회(회장 김성우, 12월 4일), 대전 서구협의회(회장 김영문, 12월 7일), 충남 금산군협의회(회장 박금주, 12월 5일)는 '2017년 4분기 정기회의'를 진행했다.

▼ 4분기 정기회의(대전 서구협의회&충남 금산군협의회)



▲ 4분기 정기회의(경기 여주시협의회&경기 군포시협의회&경기 수원시협의회)

경기 여주시협의회(회장 박용일, 12월 1일), 군포시협의회(회장 김관진, 12월 4일), 수원시협의회(회장 성열학, 12월 1일)는 '2017년 4분기 정기회의'를 진행했다.



▲ 4분기 정기회의(경기 의왕시협의회&전북 임실군협의회&서울 동작구협의회&광주 남구협의회)

경기 의왕시협의회(회장 이봉환), 전북 임실군협의회(회장 김태진), 서울 동작구협의회(회장 문화영), 광주 남구협의회(회장 정찬권, 12월 5일)는 '2017년 4분기 정기회의'를 실시했다.

4분기 정기회의(전북 김제시협의회&경북 김천시협의회&전북 완주군협의회) ▼



전북 김제시협의회(회장 도인기), 경북 김천시협의회(회장 배영애), 전북 완주군협의회(회장 정성모)는 12월 1일 '2017년 4분기 정기회의'를 열었다.



▼ 4분기 정기회의(광주 동구협의회)

▲ 4분기 정기회의(부산 동구협의회)

▲ 4분기 정기회의(충북 보은군협의회)

부산 동구협의회(회장 강영자), 광주 동구협의회(회장 김선남), 충북 보은군협의회(회장 박준석), 경북 구미시협의회(회장 구민회)는 12월 5일 '2017년 4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 4분기 정기회의(경북 구미시협의회)



▲ 평화통일강연회(부산 동구협의회)

▲ 평화통일강연회(경북 문경시협의회)

▲ 평화통일강연회(충남 아산시협의회)

전남 함평군협의회(회장 이건택)는 12월 13일부터 1박2일간 '제18기 자문위원 통일안보연수'를 실시했다. 서울 중앙구협의회(회장 장순영)는 2일 '2017년 제18기 민주평통 중앙구협의회 자문위원 연수'를 개최했다. 경기 여주시협의회(회장 박용일)는 1일부터 1박2일간 '2017년 자문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했다.



▲ 통일시대 시민교실(전남 나주시협의회)

◀ 통일시대 시민교실(인천 연수구협의회&경기 파주시협의회)

전남 나주시협의회(회장 양순봉, 12월 11일), 인천 연수구협의회(회장 서인원, 12월 13일), 경기 파주시협의회(회장 김양한, 2월 6일)는 '2017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개최했다.

통일시대 시민교실(경북 봉화군협의회&경북 의성군협의회) ▼



통일시대 시민교실(충북 음성군협의회) ▼



통일시대 시민교실(충북 음성군협의회) ▼



경북 봉화군협의회(회장 박도우, 12월 8일), 경북 의성군협의회(회장 황병윤, 12월 7일), 충북 음성군협의회(회장 이주혁, 12월 6일)는 '2017년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실시했다.



▲ 울산 평화통일아카데미(울산지역회의)

울산지역회의(부의장 김덕순)는 12월 7일 '제1기 울산 평화통일아카데미' 4강을 진행했다. 대전지역회의(부의장 이미현)와 이북5도지역회의(부의장 박기정)는 5일 '제1기 민주평화통일아카데미 수료식'을 가졌다. 전남 목포시협의회(회장 조옥희)는 7일 '제1기 목포 민주평화통일아카데미' 5강을 개최했다.

▼ 제1기 민주평화통일아카데미 수료식(대전지역회의&이북5도지역회의)



▲ 제1기 목포 민주평화통일아카데미(전남 목포시협의회)

통일문화 확산



▲ 평양 관설경 예술단 초청공연(강원 양양군협의회)



▲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체험(충남 아산시협의회)

▼ 남과 북이 함께하는 소통의 밤(경북 상주시협의회)



강원 양양군협의회(회장 권순노)는 12월 14일 '평양 관설경 예술단 초청공연' 실시했다. 충남 아산시협의회(회장 한기형)는 15일 '2017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체험'을 진행했다. 경북 상주시협의회(회장 민장기)는 8일 '남과 북이 함께하는 소통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 제10회 평화통일염원 글쓰기 공모전 시상식(전남 영평군협의회)



▲ 제주훈디슨싱어 합창단(제주 서귀포시협의회)

전남 영평군협의회(회장 박준화)는 12월 6일 관내 14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지난 6~7월에 실시했던 '제10회 평화통일염원 글쓰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제주 서귀포시협의회(회장 송재철)는 5일 남북 도민 연합 혼성 합창단을 구성해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아트홀에서 열린 '제주훈디슨싱어 합창단'에 참여했다.

통일미래세대 육성



▲ 초등학생 통일골든벨 울러라(대전 동구협의회)



▲ 민주평통 통일골든벨(서울 성북구협의회)



▲ 중학생 통일골든벨(충남 예산군협의회)

대전 동구협의회(회장 이회관)는 12월 15일 가오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 통일골든벨 울러라'를 개최했다. 서울 성북구협의회(회장 이필순)는 8일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강당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7 민주평통 통일골든벨'을 열었다. 충남 예산군협의회(회장 이진우)는 8일 예산여자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학생 통일골든벨' 퀴즈대회를 진행했다. 부산 수영구협의회(회장 김종수)는 12월 7일 동수영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7 중학생 통일골든벨 및 현장학습'을 실시했다.



▲ 중학생 통일골든벨 및 현장학습(부산 수영구협의회)



▲ 청소년 통일골든벨(인천 남구협의회)



▲ 청소년 통일골든벨(전남 광양시협의회)



▲ 고등학생 통일퀴즈대회(충남 아산시협의회)

인천 남구협의회(회장 신병희)는 12월 6일 인천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7 청소년 통일 골든벨'을 개최했다. 전남 광양시협의회(회장 김중대)는 12월 7일 광양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7년 청소년 통일골든벨'을 실시했다. 충남 아산시협의회(회장 한기형)는 12월 14일 아산시체육관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7 고등학생 통일퀴즈대회'를 개최했다.



▲ 찾아가는 통일이야기(경남 사천시협의회)



▲ 청소년 평화공감 토크콘서트(경북 고령군협의회)



▲ 평화통일기원 청소년 학교순회 통일교실(경기 파주시협의회)

경남 사천시협의회(회장 정자경)는 14일 삼천포고등학교 강당에서 교사 및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통일이야기'를 개최했다. 경북 고령군협의회(회장 정석원)는 6일 대가리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평화공감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경기 파주시협의회(회장 김강현)는 15일 광안고등학교에서 '평화통일기원 청소년 학교순회 통일교실'을 진행했다.

▼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공감 토크 콘서트(경남 의령군협의회)



▲ 탈북대학생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경기 포천시협의회&전남 여수시협의회)



▲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전북 경음시협의회)

경기 포천시협의회(회장 이중화)와 전남 여수시협의회(회장 이대안)는 12월 15일 '탈북대학생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를 개최했다. 경남 의령군협의회(회장 강재관)는 12월 14일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공감 토크 콘서트'를, 같은 날 전북 경음시협의회(회장 정태호)는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를 진행했다.



▲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경북 구미시협의회)



▼ 탈북청소년과 함께 하는 통일이야기(전북 순창군협의회)



▼ 캠페인 통일 좋아요(경기 평택시협의회)

경북 구미시협의회(회장 구민회, 12월 12일), 전북 순창군협의회(회장 김용기, 12월 14일)는 관내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탈북청소년과 함께 하는 통일이야기'를 개최했다. 경기 평택시협의회(회장 이윤하)는 12월 5일 소사벌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캠페인 통일 좋아요' 행사를 실시했다.

▼ 청소년통일교육 DMZ체험(경기 광주시협의회)



▲ 탈북청소년 멘토링 문화체험(충남 예산군협의회)



▲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경남 고성군협의회)

충남 예산군협의회(회장 이진우)는 12월 13일 '탈북청소년 멘토링 문화체험'을 진행했다. 같은 날 경기 광주시협의회(회장 김정봉)는 경화여자고등학교 학생들과 '2017 청소년통일교육 DMZ체험' 다녀왔다. 경남 고성군협의회(회장 박태공)는 14일 철성고등학교에서 '2017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를 개최했다. 경북 안동시협의회(회장 이성로)는 12월 8일부터 1박2일간 '2017년 학생들과 함께하는 평화통일생태환경탐방'을 실시했다.



▲ 학생들과 함께하는 평화통일생태환경탐방(경북 안동시협의회)



▲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경북 성주군협의회)



▲ 찾아가는 통일공감 문화토크콘서트(대전 서구협의회)



▲ 찾아가는 통일교실(전남 구례군협의회)



▲ 건대부고와 함께하는 통일이야기(서울 광진구협의회)

경북 성주군협의회(회장 손정열)는 12월 13일 성주고등학교에서 '2017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를 개최했다. 같은 날 대전 서구협의회(회장 김영문)은 대전둔원고등학교에서 '찾아가는 통일공간 문화토크콘서트'를, 전남 구례군협의회(회장 서은식)는 구례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7년 찾아가는 통일교실'을 실시했다. 서울 광진구협의회(회장 염성철)는 12월 14일 건대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7 건대부고와 함께하는 통일이야기'를 열었다.



▲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강원 철원군협의회&경기 의왕시협의회)

강원 철원군협의회(회장 오영남, 12월 12일)와 경기 의왕시협의회(회장 이봉환, 12월 7일)는 '2017년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를 개최했다. 충남 예산군협의회(회장 이진우)는 8일 예산여자중학교에서 '4차 청소년 통일교실'을, 경기 이천시협의회(회장 김영성)는 11일 이천양정여자고등학교에서 '2017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교육'을 실시했다.



▼ 4차 청소년 통일교실(충남 예산군협의회)



▲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교육(경기 이천시협의회)



▲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경북 영양군협의회)



▲ 청년학생, 한반도의 평화를 말하다(경기 군포시협의회)



▲ 행복한 통일문화 청소년 통일교육(경기 구리시협의회)



▲ 청소년 통일역량강화 체험학습(경남 고성군협의회)

경북 영양군협의회(회장 김상선)는 12월 6일 영양여자중-고등학교에서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를 개최했다. 경기 군포시협의회(회장 김권진)는 7일 흥진고등학교에서 '청년학생, 한반도의 평화를 말하다'를, 경기 구리시협의회(회장 임귀수)는 '행복한 통일문화 청소년 통일교육'을 실시했다. 경남 고성군협의회(회장 박태공)는 4일부터 2박3일간 관내 8개 중학교와 '2017년 청소년 통일역량강화 체험학습'을 진행했다.



▲ 고3 청소년 평화통일교육 (충남 홍성군협의회)



▲ 청소년 통일현장탐방 (강원 홍천군협의회)



▼ 통일안보 현장견학 (전북 정읍시협의회)



▼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전남 목포시협의회)

충남 홍성군협의회(회장 조태원)에서는 12월 1일 홍성고등학교에서 '고3 청소년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했다. 강원 홍천군협의회(회장 고춘석)는 6일 홍천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통일현장탐방'을, 전북 정읍시협의회(회장 정태호)는 5일 정읍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안보 현장견학'을 다녀왔다. 전남 목포시협의회(회장 조옥희)는 4일 목포 덕인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7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를 개최했다.



▲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안보 강연회 (강원 속초시협의회)



북한이탈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경기 가평군협의회&전남 나주시협의회)



▲ 청소년 통일교육 (경기 하남시협의회)

강원 속초시협의회(회장 박종학)는 12월 6일 설악여자중학교에서 '2017년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안보 강연회'를 개최했다. 경기 가평군협의회(회장 장봉익, 12월 6일)와 전남 나주시협의회(회장 최종석, 12월 4일)는 6일 '북한이탈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를 열었다. 경기 하남시협의회(회장 전주진)는 5일 미사강변중학교에서 '청소년 통일교육'을 실시했다.



▲ 통일을 염원하는 안보현장 체험(전남 광양시협의회)



▲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공간 토크쇼 (경북 상주시협의회)



▼ 청소년 통일안보 현장견학(충북 단양군협의회)

전남 광양시협의회(회장 김종대)는 12월 2일 '통일을 염원하는 안보현장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경북 상주시협의회(회장 민정기) 4일 성신여중, 우석여고 학생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공간 토크쇼'를 개최했다. 충북 단양군협의회(회장 김희수)는 1일 단양 상진초등학교 학생들과 '청소년 통일안보 현장견학'을 다녀왔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해서 즐거운 지역문화체험 (경기 수원시협의회)



▲ 탈북청소년 멘토링 역사문화탐방(충남 예산군협의회)



▼ 탈북민 정착지원 하나되기 발걸음(충남 천안시협의회)

경기 수원시협의회(회장 성열화)는 12월 9일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해서 즐거운 지역문화체험'을 실시했다. 충남 예산군협의회(회장 이진우)는 10일 지역의 탈북청소년 가족과 함께 '탈북청소년 멘토링 역사·문화탐방'을 다녀왔다. 충남 천안시협의회(회장 양학순)는 12일 '탈북민 정착지원 하나되기 발걸음'을 진행했다. 대전 대덕구협의회(회장 김태훈)는 11월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들과 '평화광장에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견학'을 실시했다.



▲ 평화광장에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견학(대전 대덕구협의회)



▲ 탈북가정과 함께하는 멘토링 행사(대전 동구협의회)



▲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온경 나누기 - 평화통일기원 나눔 행사 (전남 나주시협의회)



▼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현장체험(대구지역회의)

대전 동구협의회(회장 이희관)는 10일 '탈북가정과 함께하는 멘토링 행사'를 진행했다. 전남 나주시협의회(회장 최종석)는 5일 지역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온경 나누기 - 평화통일기원 나눔 행사'를 열었다. 대구지역회의(부회장 허노덕) 여성분과위원회의는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현장체험'을 진행했다.

김장나눔 행사



▲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김장나눔행사(전남 광양시협의회&강원 삼척시협의회&경북 구미시협의회)

전남 광양시협의회(회장 김종대, 12월 13일), 강원 삼척시협의회(회장 김무호, 12월 8일), 경북 구미시협의회(회장 구민회, 12월 3일)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김장나눔행사'를 실시했다.



▲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대전 서구협의회&전남 함평군협의회&경기 군포시협의회)



대전 서구협의회(회장 김영문, 12월 5일), 전남 함평군협의회(회장 이근택, 12월 3일), 경기 군포시협의회(회장 김권진, 12월 2일)는 '2017년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경북 김천시협의회&충남 청양군협의회&경기 부천시협의회)

경북 김천시협의회(회장 배영애, 12월 2~3일), 충남 청양군협의회(회장 이정우, 12월 4일), 경기 부천시협의회(회장 김기명, 12월 5일)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2017년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실시했다.

기타활동



▲ 2018 평창 평화올림픽 성공 기원 버스광고 게시 (경기 부천시협의회)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지면 광고 실시(충남 서산시협의회)



▲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 버스광고 (경남 밀양시협의회)

경기 부천시협의회(회장 김기명)는 12월 13일부터 2018년 1월까지 관내 소신여객버스 23-5번에 '2018 평창 평화올림픽 성공기원' 버스광고를 게시한다. 충남 서산시협의회(회장 유기영)는 12월 13일부터 15일 지역 및 지방신문 3곳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지면 광고를 실시했다. 경남 밀양시협의회(회장 박형목)는 12월 6일부터 2개월간 밀양역에서 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하는 시내버스에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 버스 광고'를 진행했다.

지역봉사활동



▲ 사람의 연탄 배달봉사(전북 전주시협의회)



▲ 사람의 연탄 배달봉사(강원 속초시협의회)



▲ 다문화가족 위문품 전달식(경북 군위군협의회)

전북 전주시협의회(회장 고영호)와 강원 속초시협의회(회장 박종하)는 8일 독거노인세대와 저소득계층 가구에 '사람의 연탄 배달봉사'를 실시했다. 같은 날 경북 군위군협의회(회장 최규중)는 지역사회 소외 계층을 돕는 '다문화가족 위문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해외활동

워크숍 평화통일 공공외교 같이 갑시다(미국 시카고협의회) ▶▶



미국 시카고협의회(회장 정중하)는 12월 9일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에서 '2017 워크숍-평화통일 공공외교 같이 갑시다'를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자문위원과 일반인 등 150여 명이 함께했으며 일리노이 10지구의 연방하원의원인 브래드 슈나이더가 강연을 진행했다. 슈나이더 의원은 이날 "유권자들의 목소리는 모두 중요하고 의원실은 모든 요구사항에 친절히 대응해야 하며 정당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의견을 직접 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평창올림픽 홍보 시간에는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메시지 남기기 행사와 함께 수호랑 반다비 캐릭터 뱃지 전달식이 진행됐다.

미국 로스앤젤레스협의회(회장 서영석)는 12월 6일 제이제이 그랜드호텔에서 남북해협협력과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하는 차세대 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LA동포사회의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임으로 평화통일에 관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공유하며 '2018 차세대 분과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 차세대 분과위원회(미국 로스앤젤레스협의회)



◀▶ 제18기 출범회의(중국 선양협의회)

중국 선양협의회(회장 박영완)는 12월 2일 다렌 푸라마호텔에서 '제18기 출범회의'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덕룡 수석부의장, 중국지역회의 이숙순 부의장,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덕룡 수석부의장은 축사에서 "우리 중국 선양협의회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국민협약 마련과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의미있는 업적을 남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박영완회장은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으로 안보를 지키고 지속적인 대화로 북한을 변화시켜 나가면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주춧돌을 놓을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민주평통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제18기 중국 선양협의회는 선양, 다렌, 연길, 하얼빈, 장춘, 단둥, 영구, 안산 등 동북 3성 8개 지역에서 총 62명의 자문위원이 위촉됐다.



◀ SF 민주평통 통일아카데미와 전·현직자문위원의 장 (미국 샌프란시스코협의회)

미국 샌프란시스코협의회(회장 정승덕)는 12월 2일 힐튼가든인에서 'SF 민주평통 통일아카데미와 전·현직자문위원의 장'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자문위원과 지역 단체장, 동포들과 SF총영사관 최원석 영사, 실리곤벨리 박연숙 한인회장, 박미정 코인회장 등 주요 내빈 200여 명이 함께 했다. 이날 감사로 초청된 밀피타스 리차드 트란 시장은 자신이 주류사회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전하며 "항상 도전하고, 어려운 여건에 좌절하지 말고, 성공했다라도 다시 새로운 도전을 하라"고 당부했고, 신타클라라 웨리프 리성 부국장은 미국 사회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위험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평화공감 여성컨퍼런스에 다녀온 이근옥 여성분과위원이 2박3일간 있었던 행사를 보고했다.

※ 란전 (e-행복한통일)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통한 남북관계 회복”

‘2017 상임위원회’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12월 20일 ‘2017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 9월 제18기 상임위원 위촉 후 처음 실시된 이번 회의는 의장에게 건의할 통일정책안을 채택하는 자리다. 새해를 맞아 300여 명의 위원들이 건의한 18기 민주평통 상임위원회 소식을 전한다.



적시성 있는 건의는 평화의 열쇠

함박눈이 쏟아지던 오후, 회의장에 모인 상임위원들 얼굴이 사문 진지하다. 18기 출범 후 각 분과 상임위원들이 국민과 자문위원들을 대표해 목소리를 내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는 오유경 위원의 사회로 △개회식 △민주평통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추진방향 보고 △정책건의안 채택 △문화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 김덕홍 수석부의장



▲ 황인성 사무처장

개회식에서는 김덕홍 수석부의장과 황인성 사무처장이 인사말을 전했다. 김덕홍 수석부의장은 “지난 12월 5일 운영위원회 분과위원들이 평창올림픽에 관해 긴급 건의문을 올려 오늘 아침 대통령이 미국 측에 ‘한미군사훈련 잠정 연기 협의’를 제안했다”며 “상임위원회에서도 좋은 정책안들이 채택돼 대북통일정책에 긍정적인 힘을 실어 달라”고 말했다. 황인성 사무처장은 “18기 민주평통은 9월에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개월 동안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 열정적으로 활동해주셨다”며 “오늘 상임위원 분들이 내놓는 적시성 있는 정책건의는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매우 소중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세대·계층·직능별 여론수렴 채널 다양화

김인나 기획조정관은 ‘2017년 업무실적 및 2018 주요현안’을 보고했다. 먼저 2017년 주요 업무실적은 제18기 자문회의의 구성이며 직능위원회의 경우 신규 위원 위촉 비율이 17기 49%에서 18기 62.8%로 높아졌다고 전했다. 또한 18기 발전 과제 중 하나는 자문위원들의 정책건의이며 모든 자문위원들이 분기별 정기회의와 온라인 정책건의 시스템을 통해 언제든지 의견을 건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중인 김인나 기획조정관

2018년 활동방향으로는 지역, 세대, 계층, 직능별 여론수렴 채널을 다양화하고 지역사회 통일답론을 주도해 ‘소통으로 공감하는 통일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현안은 국내 및 해외 지역회의 개최와 헌법 개정에 따른 개헌안 마련 등이 주요 현안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근원적인 접근과 포괄적인 협상



▲ 정부 대북통일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 중인 조명균 통일부장관

정부 정책보고를 위해 참석한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통일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조명균 장관은 “얼마 전 판문점을 통해 북한병사가 넘어왔는데, 과거 같으면 격투전화를 들고 서로 연락해 대응하지 말라고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소리를 지르거나 메가폰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라며 “전 세계에서 북한과 모든 것이 끊어진 나라는 우리 한국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의 핵 개발은 생선 차원의 문제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 접근과 포괄적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북핵문제가 해결돼야 남북관계가 따라갔다면,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를 병행하면서 때로는 남북관계가 북핵문제 해결을 건인하는 역할도 해야한다는 생각이며, 한반도 분위기를 안보와 정치적 대결이 아닌 경제적 이해관계로 변화시켜나가는 것이 한반도 신경제지대의 기본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을 위한 6대 우선과제

끝으로 고유환 기획조정분과위원장이 상임위원들이 채택한 우선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건의된 정책은 크게 대북, 대외, 대내 과제 6가지로 ①한반도 평화 관리의 주도권 강화와 남북협력 기반 확대 ②비정치적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재개 ③ ‘한국 역할론’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활동 강화 ④정화 공공외교의 적극적 추진 ⑤ ‘통일국민협약’ 가속화를 위한 협력 거버넌스 강화 ⑥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조화 및 공감대 확산이 그것이다.

이와 더불어 향후 대북통일정책 추진여건에 대해서는 첫째, 한반도 긴장 가중 위험과 대화국면 전환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고 둘째, 주변국들의 한반도 정책으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제약할 위험이 따르며 셋째, 한반도 안보상황의 불투명 지속 시 국내여론 결집에도 악영향이 우려될 수 있고 넷째,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전망을 내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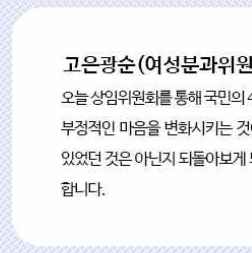
▲ 정책건의안을 발표 중인 고유환 기획조정분과위원장

우리가 **평화의 주역**이 됩시다!



이신욱 (청년분과위원회)

중차대한 시기에 상임위원회가 열려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평화공존과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청년분과는 국민과 청소년에 대한 통일교과 시스템을 제안했는데, 근본적인 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통일의식이 높아지길 기대합니다.



고은광순 (여성분과위원회)

오늘 상임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44%가 북한에 대해 적대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 민주평통의 역할인데, 그동안 너무 정체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되네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민주평통, 자문위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월도 스님 (종교분과위원회)

종교분과에서는 민간교류를 확대하고 종교인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대통령께 건의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며, 평창동계올림픽이 평화롭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모든 혼란을 자제하고 우리가 평화의 주역으로 거듭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기반 조성 유공 '2017 국민훈장 수여식'

'2017 국민훈장 수여식'이 12월 21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렸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엄중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국민훈장포장은 오랜 기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한 자문위원과 협의회 단체에 수여하는 표창이다. 국민훈장 수상을 위해 해외와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협의회장, 자문위원, 가족들을 만났다.



지역사회와 호흡하며 평화통일을 알리다

무술년 새해를 앞둔 연말,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는 꽃 향기가 그득하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평화 기반 조성에 힘쓴 협의회장과 자문위원들에게 '국민훈장·포장'을 수여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행사가 열린 백범김구기념관은 김구 선생의 애국애족정신과 통일자유국가 건설을 기리는 곳으로 이날 수여된 국민훈장·포장의 의미를 상징하는 곳이기도 하다.

김희영어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수여식에는 국민훈장포장과 단체표창을 수상하는 자문위원 78명과 초청 객객 400여 명이 함께 했다. 행사는 개회식, 국민훈장·포장 수여, 의장 단체표창 수여, 축하공연, 단체 및 개별 기념촬영, 다과회 순으로 진행됐으며, 김덕룡 수석부의장과 황인성 사무처장이 수상을 진행했다.

수상에 앞서 김덕룡 수석부의장은 "우리 자문위원들은 국민 속에 뛰어들어 사회와 호흡하고 통일 의견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국민훈장포장을 받는 분들처럼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분들이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민주평통 지도자이자 여러 분들이 국민 단합을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인성 사무처장



▲김덕룡 수석부의장

황인성 사무처장은 "오늘 표창을 받으시는 위인 분들은 민족의 숙원인 한반도 평화통일의 소임을 묵묵히 수행해 오신 분들이며, 이 자리는 국가가 그 공로를 인정해 명예를 드리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국민훈장 · 포창 수상한 48명의 자문위원

국민훈장·포창 수여식은 △모란장 △동백장 △석류장 △국민포장 △의장 단체포장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모란장은 총 9명으로 김순옥(서울 서초구 협의회), 김순택(제주 제주시협의회), 김승언(광주 광산구협의회), 송현만(전북 전주시협의회), 오영철(세종지역회의), 이계방(북유럽협의회), 이상조(서울 영등포구협의회), 조창진(강원지역회의), 한인회(경기 평택시협의회) 위원에 수상했으며, 북유럽에서 온 이계방 위원에 대해서는 짧은 소개가 이어졌다.

이에 이계방 위원은 “외국생활을 오래 하다보면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며 “20여 년간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의장님의 통일정책에 따라 평화와 통일을 알리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훈장 수여식



▲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한 자문위원

△동백장은 10명의 위원이 표창을 받았다. 김동선(상임위원), 김용명(충북 청주시협의회), 김진모(미국 오렌지·샌디에고협의회), 서진주(대구 중구협의회), 오영남(강원 철원군협의회), 유정학(인천 서구협의회), 윤준호(경북 경주시협의회), 이진우(충남 예산군협의회), 조홍규(경남 의령군협의회), 최철명(상임위원) 위원이다.

△석류장은 12명으로 강영자(부산 동구협의회), 곽종문(상임위원), 김도연(상임위원), 김성진(경남 고성군협의회), 김승취(서울 강남구협의회), 김영문(대전 서구협의회), 김오차(상임위원), 윤종윤(서울 송파구협의회), 이순탁(경기 이천시협의회), 조옥희(전남 목포시협의회), 최해상(울산 남구협의회), 허남세(중국 광저우협의회) 위원이 표창을 받았다.



▲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한 자문위원

이어 △석류장에는 강인구(상임위원), 김수일(경기지역회의), 김은숙(경북 영덕군협의회), 김정연(서울 도봉구협의회), 김중수(부산 수영구협의회), 노용신(서울 동대문구협의회), 석영완(경기 성남시협의회), 이동근(상임위원), 이병호(경남 창원시협의회), 이상현(울산 북구협의회), 경승덕(미국 샌프란시스코협의회), 조철욱(서울 마포구협의회), 최금자(인천 강화군협의회), 최번부(전남 완도군협의회) 위원 등 14명이 표창을 받았다.

국민포장에는 강현석(미국 뉴욕협의회), 정병현(전북지역회의), 황점연(경기 양주시협의회) 위원 3명이 수상했다.



▲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한 자문위원

의장 단체표창을 수상한 국내외 30개 협의회

의장 단체표창에는 30개 협의회가 수상했다. 서울에서는 금천구·서초구·송파구협의회, 부산 금정구·기장군협의회, 대구 서구협의회, 인천 계양구협의회, 광주 서구협의회, 대전 서구협의회, 울산 울주군협의회, 경기 이천·오산·여주시협의회, 강원 원주시·화천군협의회, 충북 보은·음성군협의회, 충남 보령시·서천군협의회, 전북 군산·김제시협의회, 전남 담양·고흥군협의회, 경북 여주·경산시협의회, 경남 통영시·합천군협의회, 제주 제주시협의회, 중국 칭다오협의회, 미주 보스턴협의회 등이다.

수여식 후에는 남성 4인조 팝페라 그룹 '라스페란자'가 '지금 이 순간(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수록곡), 'We are the champions' 등 국민훈장포장 수여에 어울리는 축하공연을 선보였다. 공연 후에는 협의회 단체 및 개별 기념촬영이 이어졌으며, 모든 순서 후에는 맛있는 다과회와 함께 국민훈장 수여식이 마무리됐다.



▲ 의장 단체표창을 수상한 협의회들



▲ 기념촬영 중인 자문위원과 가족들

미니인터뷰

“민족의 아픔을 씻어내는 평화통일을 위해”



송현만(전북 전주시협의회, 모란장)

국민훈장을 받아 영광입니다. 평화통일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려는 흥장이라 여기며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뛴겠습니다.



김진돈(서울 송파구협의회, 의장 단체표창)

자문위원 한 분 한 분이 함께 받는 상이라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보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평화와 통일을 위해 화합하는 협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선(상임위원, 동백장)

훈장을 받으니 책임감이 더욱 막중하게 느껴집니다.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는 마음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남북 스포츠 교류를 통해 통일에 한 발 더 다가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준석(충북 보은군협의회)

소중한 상을 충북 보은군협의회가 받게 돼 영광입니다. 우리 민족이 염원하고 있는 평화통일을 위해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남과 북이 소통하며 아픔을 씻어내는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독도-신미도 국해 대장정 떠난 통일중학교

글. 김혜진/그림. 이택중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곳 독도는 통일 후 국제재판 과정을 거쳐 세계가 인정하는 '통일한국 땅'이 되었습니다. 졸업여행으로 독도부터 신미도까지 해양 가꾸기 대장정을 떠난다니 무척 감동입니다.





해군 아저씨!
그런데 이
쓰레기들은
어디로 가요?

오늘 수거한 것들은 '동해 경제벨트'를 통해 청진
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단지로 가게 돼. 이런
페트병과 어망은 폐기물에너지로 활용되고 불가
사리 같은 해적생물들은 제설제로 쓰이거든.



선생님~. 제주도 청소 끝나면
또 어디로 가요?

오늘은 제주도에서 자고 내일
목포항을 거쳐 신미도로 간다.

우와~! 목포항이면 친환경
부품소재 만드는 공장 탐방 가는 거죠?



목포 친환경 부품소재 공장

여러분~. 지금 안쪽에 보이는
공정실은 자동차나 항공기의 친환경 부품소재를 만드는 곳입니다.
우리가 수거한 폐기물 중 일부가 원료로 쓰이기도 한답니다.



자, 우리가 서 있는 백령도는 통일 후 인천항과 함께 '황해 경제
벨트'가 된 곳이다. 중국하고도 가까워서 해양과 항공 유통이 많지.
여기서 2시간만 청소하고 마지막 코스 신미도에서 맛있는 저녁을
먹을테니 조금만 더 힘내라~.



2018년 새해 '평화통일 덕담' 이벤트

응모하기로 새해 덕담을 보내주시면 20명을 추첨해 4천 원 상당의 모바일 커피교환권을 보내드립니다.

2018 덕담 EVENT

무술년 새해를 맞아 평화통일을 위한 각오와 다짐을 덕담으로 남겨주세요.
아름다운 덕담 20개를 선정해 **4천원 상당의 커피쿠폰**을 드립니다.

예시

“2018년에는 내 주변에서부터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새해에는 지역사회가 통일되는 평화를 만들겠습니다”

참여방법

응모 기간 2018년 1월 1일 ~ 26일까지

응모 방법 비밀댓글 (상품 수령을 위해 전화번호를 꼭 남겨주세요!)

경 품 모바일 커피교환권(4천 원 상당) 20명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념 퀴즈 이벤트

응모하기로 'OO' 빈칸에 들어갈 2개 단어를 보내주시면 50명을 추첨해
4천원 상당의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오는 2월 개최됩니다.

이에 제18기 민주평통은 지난 10월 31일 평창올림픽경기장에서
평화올림픽을 기원하는 전체회의를 열었는데요.

이날 열린 행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목적지는 ‘○○○와 ○○○의 한반도’”라고말했는데요.
 ○○○에 들어갈 두 단어는 무엇일까요?

힌트보기

정답을 맞히신 50분을 추첨해 4천원 상당의 모바일 커피교환권을 드립니다.

참여방법

- 응모 기간 2018년 1월 1일 ~ 28일까지
- 응모 방법 비밀댓글(상품 수령을 위해 전화번호를 꼭 남겨주세요!)
- 경 품 모바일 커피교환권(4천 원 상당) 50명



‘2018 평창동계올림픽’ 북한선수 참가 희망 메시지 이벤트 당선작



봄이양 님

대한민국에서 처음 열리는 동계올림픽이기에 우리 북한 선수들도 함께 참여해 그 의미를 더하고 이를 통해 남과 북이 더욱 가까워지는 소통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르니 님

북한에서도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많은 선수들이 열심히 훈련을 해왔을 것입니다. 남북의 대립상황 때문에 이 선수들이 빛을 보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선수단이 참여한다면 관심이 높아져서 대회도 흥행에도 도움이 되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도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북한선수들이 힘차게 평창에서 자신의 기량을 맘껏 뽐낼 수 있기를 바라며 대회 참가를 응원합니다.



노트북 님

남한과 북한이 함께 빛나는 모두의 평창 올림픽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평화! 평화! 2018 평창올림픽 파이팅~



재미나게 님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서 몇몇 국가에서 참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88올림픽이 동서생전을 중식시키는 올림픽이었다면, 평창동계올림픽은 남북의 긴장관계를 중식시키고 평화로 가는 올림픽이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북한선수단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남북이 하나되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북한선수단 열심히 응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KIRTIORI 님

우리는 원래 한민족입니다!! 남북간 긴장상태가 다소 올라간 측면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북한대표팀의 평창올림픽 참여를 기원합니다!!



예술의신 님

남북이 멋진 스포츠맨십을 보여주는 그런 평창 평화올림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약산진달래 님

남북의 소통이 끊어진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지난번 강릉빙상경기장에서 남북 아이스하키팀의 응원을 위해서 다녀왔고 금번 동계 올림픽에 다시 한 번 찾아 와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일팀 구성은 어렵겠지만 북한 선수단이 각종 경기에 임하여 세계의 선수들과 그동안 닦은 기량을 발휘하고 남한에서의 환영하는 아름다운 모습도 보고 가길 바랍니다. 꼭 참가하셔서 평화로운 평창 동계올림픽이 되기를 학수고대합니다. 평창! 통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화이팅!

우리나라에서 오랜만에 올림픽이, 최초로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만큼 북한 선수들도 평창에서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북한선수들이 우리나라에서 경기를 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고 싶네요~



김수현 님



곽여사 님

D-59, 평창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와 있네요. 그저께 제가 사는 대전에도 성화 봉송이 와서 아이들 손잡고 구경 다녀왔어요. 언제 또 이런 구경을 해볼까 하면서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통해 우리는 '손에 손 잡고' 인종, 전쟁, 갈등, 불신의 벽을 보란 듯이 넘어냈고, 2002 월드컵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면 꿈★은 이루어진다는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화두가 이제 '평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올림픽 정신에 입각한 모든 선수의 참여는 대환영입니다. 같은 민족의 북한선수들이 꼭 참가하기를 희망합니다. 평창에서의 진정한 승부와 멋진 경기를 보고 싶습니다.



시원한아침 님

※ 웹진 (e-행복한통일)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e 행복한 통일 이벤트 당선

민주평통 웹진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8기 전체회의대표 슬로건 이벤트

| 닉네임 | 이메일 주소 |
|--------|-----------------------|
| 준이 | jun***@naver.com |
| 아스란자 | wk_***@naver.com |
| 이석준 | szho***@naver.com |
| 킹짱 | ada***@hanmail.net |
| 밥진 | jini3***@naver.com |
| 블랙비트 | bang***@naver.com |
| 총밍 | kseoj2***@hanmail.net |
| 18기위원 | seoyeo***00@naver.com |
| 란돌살양 | lskh***o@naver.com |
| 한별초 | cey***t@hanmail.net |
| 야옹이 | alst***hd@naver.com |
| 천지인 | kh***a@hanmail.net |
| 정경아 | rud***915@hanmail.net |
| 통통평화 | ge7***31@nate.com |
| 요미 | m0***@naver.com |
| 이경화 | lk***26@naver.com |
| 홍승임 | moi1***27@naver.com |
| 아림맘 | jjgo***4@hanmail.net |
| silver | sil***r@naver.com |
| 보경어머니 | ha***0@naver.com |
| 정양 | jeon***e258@naver.com |
| 사파이어걸 | tkvkdI***f@naver.com |
| 안진사 | ke***6@naver.com |

| | |
|----------|----------------------|
| sado1011 | sad***11@naver.com |
| 오디 | ykle***9@naver.com |
| sinabro | hes***01@hanmail.net |
| 열무아빠 | cra***sh@naver.com |
| 104동 | lskhe***0@naver.com |
| 멋진올림픽 | leon***e@hanmail.net |
| 박인수 | pis6***@naver.com |



평창올림픽 북한 선수 참여 응원 이벤트

| 닉네임 | 이메일 주소 |
|---------|-------------------------|
| 봄이양 | jasmi***ndy@hanmail.net |
| 나르니 | naren***02@hanmail.net |
| 노트북 | ok19***o@naver.com |
| 재미나게 | k***s@nate.com |
| KIRTORI | nee***eed@hanmail.net |
| 예술의신 | artist***@hanmail.net |
| 약산진달래 | icki***50@hanmail.net |
| 김수현 | gh***@naver.com |
| 곽여사 | kyi66***9@daum.net |
| 시원한아침 | mon***e@naver.com |



웹진 만족도 조사 이벤트

| 휴대폰 번호 | 휴대폰 번호 |
|---------------|---------------|
| 010-49**-5912 | 010-82**-5337 |
| 010-95**-1778 | 010-27**-4670 |
| 010-75**-3998 | 010-46**-3699 |
| 010-34**-2293 | 010-71**-1517 |
| 010-91**-5305 | 010-27**-0867 |
| 010-26**-9285 | 010-41**-5479 |
| 010-54**-1651 | 010-88**-0100 |
| | 010-56**-9396 |